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

Children's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Their perception of Parental Warmth and Control

공 인 숙
Kong, In Sook

ABSTRAC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children's self-perceived competence as related to (1) their perception of parental warmth and control (2) age and sex of child (3) the relationship of this perception to parents' educational level and children's sex. The subjects were 303 fourth and sixth grade children selected from three elementary schools in Seoul. The instruments were a children's self-perceived competence scale, and a perception of parental warmth and control scale. Frequencies, percentiles, mean, t-test, oneway-ANOVA, and Scheffé-test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self-perceived competence by perception of parental warmth and control. The children who perceived more parental warmth and control perceived themselves higher in cognitive and social competence and in self-worth. Children whose parents' were college graduates perceived highest parental warmth. Fourth grade children perceived themselves higher than sixth grade children in cognitive competence and in global self-worth. Boys perceived themselves higher than girls in physical competence. Boys perceived higher parental control than girls.

I. 問題의 提起

自我 (self) 에 대한 體系的 研究가 1890년 William James에 의해 시작된 이래, 自我概念은 人性 形成에 가장 核心的인 役割을 담당하는 것으로 認識되어져 왔다. 그리

나, 自我概念이나, 自尊心과 같은 自我의 評價의 次元에 관한 研究들은 서로 相關된 研究結果를 보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상반된 結果까지 보이고 있다. 이것은, 自我概念이나, 自尊心과 같은 概念이 總體的이거나 애매모호하게 定義되어 있는 것에 起因한다.

* 본 논문은 1989년도 서울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Harter, 1982; Shavelson, et al., 1976).

최근에 여러 學者들 (Cause, 1987; Harter, 1982; Kagan, et al., 1982)은, 自我概念이나 自尊心과 같이 自我評價를 總體的으로 규정한 傳統的 單一次元 概念의 尺度에 反對하면서, 아동들이 自我評價를 하는 것을 보면 領域에 따라서 다른 견해를 보인다고 했다. 즉, Harter(1982)는 아동이 약 8세 이상이 되면 역량의 각 領域간의 구별을 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領域의 力量에 대한 판단을 超越해서 全般的 自我價値까지 갖는다고 가정한다.

한편,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은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아동의 성별, 연령의 영향을 받을 것이 시사된다. 그러나, 養育行動이나 育兒方式은 비교적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本 研究에서는 대부분의 인간 사회에서, 父母의 溫情과 統制 (Goldin, 1969; Rohner, 1986: 69; Rohner, & Rohner, 1981; Schaefer, 1959)가 아동의 力量에 대한 自己知覺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이 知覺한 父母의 溫情과 統制에 의해서, 아동의 특성이 영향받는다. (Goldin, 1969; Rowe, 1981; Rohner, 1986: 102)는 입장을 수용하여, 本 研究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父母의 溫情과 統制에 따른 아동의 역량에 대한 自己知覺의 차이를 규명하려고 한다.

부모의 온정과 통제에 따른 아동의 특성을 다룬 研究 結果를 종합해 보면, 父母의 溫情次元은 아동의 역량發達에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일관성 있는 研究 結果를 보이나 父母

의 統制차원에 대한 研究는 일관된 研究 結果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Perry, & Bussey, 1984: 99~100; Rollins, & Thomas, 1979: 320).

本 研究에서는 父母의 統制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父母의 溫情 정도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Heilbrun, & Waters, 1968; Baumrind, 1973; Rollins, & Thomas, 1979: 352)는 입장에서 父母의 溫情 및 統制가 함께 아동의 역량發達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한편, 역량에 대한 아동의 自己知覺 발달에 관련된 要因에 관한 研究 (Harter, 1982; Harter, & Pike, 1984; Nottelman, 1987)에서, 역량에 관한 自己知覺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역량에 대한 自己知覺이 연령에 따라 모든 領域에서 同一하게 발달하는 지에 관한 研究 (김치영, 1987; Harter, 1982; Nottelman, 1987)와, 아동이 性別에 따라서, 領域에 따라 역량을 차이있게 지각하는지에 관한 여러 先行 研究들 (김치영, 1987; Harter, 1982; Stigler, et al., 1985)은 서로 일치된 結果를 보여주지 못한다. 따라서, 아동의 역량에 대한 自己知覺이 연령과 性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研究가 요청된다.

이와 함께, 부모의 온정과 통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자녀의 특성중에서 研究 結果에서 일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아동의 性別 (이수연: 1985; Goldin, 1969; Rohner, 1986: 102; Rohner, & Pette-ngill, 1985)에 따른 父母의 溫情과 統制에 대한 아동의 지각차와, 부모의 교육수준이, 父母의 溫情과 統制에 미치는 영향을 糾

明하고자 한다.

II. 이론적배경및 선행연구의 고찰

1.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역량은 인간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적절하게 과제를 수행하는 적합성(공인숙, 1987)으로 정의되며, 인간은 성숙하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 특히 중요한 사회화인자인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 정도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즉, 자신의 역량에 대한 평가적 측면이 형성되는데, 이것은 학자에 따라서, 자존감(Coopersmith, 1967), 자아개념(Wylie, 1979), 자아효율성(Bandura, 1981), 자아적합성(Rohner, 1986),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Harter, 1982) 등의 다른 용어로 연구되어졌다.

최근에,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은 Coopersmith가 제안한 자존감의 분화된 개념으로, 기존의 자아평가 척도에 대한 방법론적, 개념적 단점을 보완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Cause, 1987; Harter, 1982; Nottelman, 1987; Stigler, et al., 1985).

즉, 기존의 자존감이나 자아개념이 인지적 역량, 신체적 숙련정도, 인기도, 부모로부터의 승인, 도덕성, 성격특성, 신체적 특징등의 이질적인 항목에 대한 반응을 요약한 총점수로 자아에 대한 연구의 평가나 해석에서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 (Shavelson, et al., 1976)는 입장을 보완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국민학교 3학년 부터는 역량의 영역 간에 구별을 하며, 국민학교 3학년 이상의 아동은 학업에 관한 인지적 역량, 또래관계에 관한 사회적 역량, 운동이나 실외게임에 관한 신체적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을 중시하며, 전반적인 자아가치에 대한 자기지각까지 한다(Harter, 1982)는 점을 수용한다.

2. 부모의 온정과 통제

1) 부모의 온정과 통제의 개념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시사되지만(Harter, 1978), 양육행동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개념화나 구체적 연구에 적용되기 어려운 제한점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가장 잘 설명(Goldin, 1969; Schaefer, 1959; Schluderman, & Schluderman, 1970) 하면서도,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발견되는(Rohner & Rohner, 1981), 부모의 온정과 통제를 부모의 양육행동의 중요한 2가지 차원으로 설정했다. 부모의 온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이며, 칭찬, 격려등의 긍정적인 강화를 하는 것(Becker, 1964; Schaefer, 1959)이다. 또한, 부모의 통제는 개념상의 일치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아동의 행동이나 내적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부모가 사용하는 행동(Peterson, & Rollins, 1987:474)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객관적인 부모의 온정과

통제 정도 뿐 아니라 아동이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 부모의 온정과 통제가 아동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Rohner, 1986 : 102; Rowe, 1981) 고 보아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과 통제를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과 통제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온정과 통제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 양육방식이 차이가 있고, 기대나 포부수준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유안진, 1982; 87), 그러나,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온정과 통제가 다르기에 관한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자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우선, 남아가 여아에 비해 부모의 온정을 적게 경험한다는 선행연구 결과 (이수연, 1986; Block, 1983; Maccoby, & Jacklin, 1974; Zussman, 1978)가 있다. 그러나, 영아의 부모를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남아가 안정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여아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받았다. (Moss, 1967). 이것은 남아가 신체적인 활동을 선호하거나, 기질적인 원인에서 부모로부터 체벌을 포함한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받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아보다 긍정적 반응도 많이 받을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남여아에 대한 부모의 온정 정도는 문화권에 따라 상이했다. (Rohner, 1986 : 102). 따라서, 한국과 같이 유교전통이 강한 문화권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부모를 온정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대 교육의 영향이나, 남아의 신체적 활동을 선호하는 특성에 의해 남아가 부모를 비온정적으로 지각할 가능성 (이수연, 1985; Rohner, & Pettengili, 1985)도 시사된다.

또한, 아동은 성별에 따라서, 부모의 통제를 달리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즉, 남이는 여아보다 신체적 활동을 선호하고 (Zill, 1985) 부산하고, 다루기 힘들다고 지각되므로 (Abbott & Brody, 1985), 부모가 높은 수준의 통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2) 부모의 교육수준과 부모의 온정과 통제

부모의 양육태도가 계층에 따라 상이하다는 경험연구 (Gecas, 1979; Maccoby, 1980; Zussman, 1978)는 많다. 그러나, 국내 연구의 경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의 교육수준을 동시에 변수로 삼아 연구한 결과, 두 변수 모두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 (이원녕, 1987)도 있으나, 부모의 교육수준만이 관계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 (강완숙, 1983; 한종혜, 1980)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社會階層의 개념이 명료하지 못할 뿐 아니라 社會階層을 측정하는 척도가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의 개념보다는 사회계층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는 父母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의 온정과 통제를 살펴보는 것이 더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부모의 교육수준과 부모의 온정과 통제의 관련을 직접 연구한 결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父母는 보다 더 애정적, 수용적이었다. (이원녕, 1987; 한종혜, 1980). 반면, 부모의 교육수준과 父母의 통제와의 관계는 불명확하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부모의 통제가

차이가 없다는 연구(한중혜, 1980)가 있는가 하면,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통제적이라는 연구(이원녕, 1987)도 있다. 따라서, 부모의 교육수준이 부모의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3. 力量에 대한 自己知覺의 發達

1) 兒童의 연령과 力量에 대한 自己知覺의 發達

연구자들(Harter, 1982; Harter, & Pike, 1984; Stipek, 1981)은 아동의 연령에 따른 力量에 대한 自己知覺의 發達을 연구한 결과, 연령에 따라 발달적임을 보고한다.

Harter(1982)는 9~12세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밝히고, 아동들이 모든 숙련적인 영역에서 동일하게 역량을 지각하지 않는 것을 밝혔다. 즉, 8세 이상의 아동들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의 자신의 역량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할 뿐만 아니라, 특수한 역량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는, 한 인간으로서의 자아가치에 대한 견해를 구축한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약 8세 이상의 아동들이 자신의 역량에 대한 판단을 영역에 따라 다르게 한다는 점에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일치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발달이 영역별로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는 일치되지 않거나(김치영, 1987), 연구도 별로 이루어지지 못한 편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2) 兒童의 性別과 力量에 대한 自己知覺의 발달

兒童의 성별에 따라서, 자아개념이나 자존감에 차이가 있는가에 관한 연구는 조사대

상과 조사도구에 따라 일관성 없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우선, 性差가 없다는 일군의 연구 결과(한성희, 1985; Cause, 1987; Piers, & Harris, 1964)가 있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 결과로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에서 性差가 없음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즉, 성별에 따른 兒童의 자아개념을 연구한 Wylie(1979)는 모든 연령에서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면서, 性差가 없는 것은 性差가 나타나는 부문이 합산되면서, 性差가 소거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한편, 性差가 있다는 연구(김치영, 1987; Harter, 1982; Nottelman, 1987; Stigler, et al., 1985)도 있는데, 연구결과를 보면, 서로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못하나, 비교적 일관성있게 남아가 여아보다 身體의 力量이나 運動的 力量에 대한 自己知覺을 높게 하므로, 비록 兒童이 전체적으로는 力量에 대한 自己知覺에서 性差가 없었다 하더라도 성역할 고정관념과 일치되는 특정한 영역에서는 力量에 대한 自己知覺을 달리할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3) 父母의 溫情 및 統制와 兒童의 力量에 대한 自己知覺

부모의 온정 차원은 연구자(Becker, 1964; Rollins, & Thomas, 1979; Schaefer, 1959; Siegelman, 1965)에 따라 여러 명칭으로 불리지만, 일반적으로 아동의 바람직한 행동과 정적인 관련을 보인다.(Ainsworth, & Bell, 1974; Becker, 1964; Maccoby, 1980; Martin, 1975). 부모의 양육 행동과 아동의 자존감 발달을 다룬 국내 연구(이미정, 1988) 결과, 부모가 온정적

양육 행동과 아동의 자존감 발달을 다룬 국내 연구(이미정, 1988) 결과, 부모가 온정적인 경우가 非溫情인 경우보다 아동의 자존감이 높았다.

반면, 부모의 통제 차원의 영향은 일관성이 없으며, 심지어 상반되기도 한다. 또한, 연구자에 따라서도 부모의 통제에 대한 개념화가 다양해서 개념상의 혼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인의 양육 행동 내에 온정과 통제가 존재하는 것이란 점과 부모의 온정과 통제가 어떻게 결부되는가에 따라 아동의 역량과의 관계가 상이하다는 입장에서, 부모의 양육 유형에 따라 아동의 역량 발달을 연구한 관점을 수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통제 차원의 긍정적인 효과는 부모의 온정 차원에 의해 변화된다.(Baumrind, 1973; Heilbrun, & Waters, 1968; Perry, & Bussey, 1984; Rollins, & Thomas, 1979:352). 즉, 부모가 통제적인 경우 아동의 행동이 긍정적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온정적이어야 한다(Baumrind, 1967, 1973).

Baumrind(1967, 1973)는 온정, 통제, 성숙요구, 의사소통의 명료성의 관점에서 부모의 행동 유형을 권위적, 민주적(authoritative), 허용적 유형으로 분류해서 연구한 결과, 온정적이면서도 통제적인 민주적 유형의 부모의 자녀가 가장 역량 발달이 뛰어났음을 밝혔다.

따라서, 아동이 부모를 온정적이면서도 통제적으로 지각할 때,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론된다.

III. 가설 및 연구문제

〈가설 1〉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 및 통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과 통제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과 통제는 아동의 성별에 차이가 있는가?

IV. 研究方法 및 節次

1. 調査對象

兒童이 약 8세 이후에 力量의 각 부문간의 변별을 하고, 總體인 自我價値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므로(Harter, 1982), 서울시내 국민학교 4학년과 6학년 男女 兒童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의 표집은 父母의 教育 水準이 편중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비교적 下流層에 속하는 용산구의 Y國民學校, 中下流層에 속하는 중랑구의 S國民學校, 中上流層에 속하는 강남구의 G國民학교를 有意 標集하였다.

본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앞서서, 질문지 응답 형태에 대한 兒童의 應答 可能性을 파악하기 위하여, 1988년 7월 22일에 용산구의 Y國民學校의 43명의 4학년 兒童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본 조사는 1988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각 학교에서 4학년 1개반과 6학년 1개반을 임의

선정하여 男女 兒童 319명을 研究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부실기재된 경우와 偏父母 슬하의 아동의 경우인 16명을 제외한 303명의 兒童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兒童의 연령은 本調査日을 기준으로 하여 9년7개월부터 10년6개월에 해당하는 國民學校 4학년이 48.7%를 차지하고 만 11년7개월에서 12년6개월에 해당하는 國民學校 6학년이 51.3%를 차지하여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조사대상 兒童의 性別은 男兒가 149명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하며, 女兒는 153명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하여, 男女 兒童의 性比는 거의 비슷하다.

父의 教育수준은 中卒이하가 62명으로 전체의 20.8%를 차지하고 高卒이 110명으로 전체의 36.9%, 大卒이 126명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母의 경우는 中卒以下가 92명으로 31%, 高卒인 경우가 128명으로 43.4%, 大卒이 76명으로 전체의 25.6%를 차지하여서, 전체적으로 父의 教育수준이 母의 教育수준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2. 測定道具

本 研究의 목적에 맞도록, 先行研究(김치영, 1987; 오성심, 이승중, 1982; 정원식, 1969; 조희금, 1982; 한중혜, 1980; Harter, 1982)를 참조하여서 <1> 兒童의 力量에 관한 自己知覺과 <2> 兒童이 지각한 父母의 溫情과 統制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研究者가 작성했다.

아동의 力量에 대한 자기지각 척도는 兒

童의 認知的 力量에 對한 自己知覺, 社會的 力量에 對한 自己知覺, 身體的 力量에 對한 自己知覺, 全般的인 自我價値에 對한 自己知覺을 측정하는 下位尺度로 이루어졌다.

아동이 지각한 父母의 溫情과 統制 척도는 정원식(1969)의 “가정환경 진단 척도” 중에서 가정의 心理的 過程 次元과 오성심, 이승중(1982)의 척도를 근간으로 하여, 한중혜(1980), 조희금(1982)의 연구를 참고하여 研究者가 研究의 目的과 研究對象者의 언어 발달 수준에 맞게 製作하였다.

문항이 선정되었으며, 溫情과 統制의 정도만을 측정하기 위하여 중립적 태도인 중간점이 예상되는 답지를 제외한 4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溫情과 統制 척도는 각각 최저 17점에서 최고 68점의 점수분포를 갖게 된다.

3. 資料의 處理

本 研究에서는 SPSS/PC+(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Personal Comput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分析方法으로 자료를 처리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一般의 性格과, 力量에 대한 自己知覺 점수와 兒童이 지각한 父母의 溫情과 統制 점수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백분율, 평균, 빈도분포,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兒童이 지각한 父母의 溫情 및 統制에 따라, 兒童의 力量에 대한 自己知覺이 의미있게 차이가 있는지와 父母의 教育水準에 따라 兒童이 지각하는 父母의 溫情과 統制가 의미있게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하였고, 동시에 각 변

수의 下位集團間에 有意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Scheffé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兒童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兒童의 力量에 대한 自己知覺의 차이와, 兒童이 知覺한 父母의 溫情과 統制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검증을 했다.

V. 結果 및 解釋

1. 兒童의 力量에 대한 自己知覺 정도

兒童의 인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 신체적 역량, 자아가치에 대한 자기지각점수는 13.77, 13.67, 13.02, 13.28점으로 아동은 자신의 역량을 보통 정도로 지각하고 있었다.

2. 兒童이 知覺한 父母의 溫情과 統制 정도

兒童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 정도는 평균 54.55, 표준편차 8.46이며, 통제 정도는 평균 50.04, 표준편차 5.58로 兒童은 부모를 비교적 온정적이면서도, 통제적으로 지각하는 편이었다. 이것은 이원녕(1987:375), 정정순 <표 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 및 통제에 따른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1972:83)의 결과와 유사해서, 한국의 母가 애정적이며 통제적이라는 기존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상의 기초 자료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兒童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과 통제 차원을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4 집단으로 분류했다. 각각의 집단의 빈도와 백분율은 다음과 같다.

<표 1> 兒童이 知覺한 父母의 溫情과 統制 정도에 따른 집단

집 단	N	%
溫情, 統制的	96	31.7
非溫情, 統制的	71	23.4
溫情, 非統制的	69	22.8
非溫情, 非統制的	67	22.1
합 계	303	100.0

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 및 통제에 따른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의 차이.

온정, 통제	온정통제적	온정비통제적	비온정비통제적	비온정통제적	
역량	N	96	69	67	71
인 지 적	평 균	14.50	14.33	13.21	12.76
	F	6.24 ***			
	grouping	AB	AB	B	C
사 회 적	평 균	14.44	14.20	12.97	12.77
	F	4.62 **			
	grouping	AB	B	B	C
신 체 적	평 균	13.59	12.99	12.64	12.61
	F	1.32			
	grouping				
자 아 가 치	평 균	14.44	13.62	12.16	12.42
	F	10.19 ****			
	grouping	A	AB	C	BC

〈표 3〉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과 통제

부모의 교육	N	온정 · 통제		온 정		통 제	
		평균	F	grouping	평균	F	grouping
대졸	126	56.02	3.48 *	AB	50.62	1.48	
부 고졸	110	53.20		C	49.44		
중졸이하	62	54.12		BC	49.61		
대졸	76	57.22	6.03 *	AB	50.74	1.03	
모 고졸	129	54.36		BC	49.87		
중졸이하	92	52.80		C	49.52		

a. Scheffé - test 에 의한 집단화. (P < .05)

〈표 4〉 아동의 학년에 따른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학년	N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자아가치	
		평균	t	평균	t	평균	t	평균	t	평균	t
4	148	14.36	3.36***	13.85	0.87	13.36	1.59	14.02	4.16***		
6	155	13.20		13.50		12.69		12.57			

〈표 5〉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성별	N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자아가치	
		평균	t	평균	t	평균	t	평균	t	평균	t
남	149	13.71	-0.26	13.76	0.53	13.83	3.83***	13.43	0.80		
여	153	13.80		13.54		12.26		13.14			

(* P < .05 ** P < .01 *** P < .001 *** P < .0000)

〈표 6〉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과 통제

성별	N	온정과 통제		온 정		통 제	
		평균	t	평균	t	평균	t
남	149	53.91		-1.33		50.68	1.92 *
여	153	55.20				49.46	

(* P < .056)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 및 통제에 의해 구분된 4 집단에 따라,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이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 변량분석과 추후검증을 통해 알아 보았다.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부모를 온정적이라고 지각하는 아동이 부모를 비온정적이며 통제적이라고 지각하는 아동보다 인지적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을 높게 한다. 이 결과는 Baumrind(1967, 1971), Harter와 Pike(1984)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것은, 부모를 온정적으로 지각하는 경우에 아동은 안전감을 느끼고 불안수준이 낮아져, 환경을 탐색할 기회를 많이 갖게 되므로, 인지적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도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부모를 온정적이며 통제적으로 지각한 아동이 부모를 비온정적이며, 통제적이라고 지각한 아동보다 사회적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을 높게 했다. 이 결과는 Baumrind(1967, 1971), Becker(1964), Harter와 Pike(1984)의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즉, 부모가 비온정적이며 단호한 통제를 하는 경우에 아동은 신경증적인 갈등을 표출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만족을 얻기 어려운 특성을 지닐 가능성이 많아진다. 또한, 부모가 아동에게 비온정적인 경우,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언어적 신체적 공격성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아지므로(George, & Main, 1985), 아동이 또래에게 승인이나, 인기를 얻지 못해서, 사회적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세째로, 아동의 신체적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은 부모의 온정 및 통제에 대한 지각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이원녕(1987), Harter와 Pike(1984)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인지적 부문이나 정서적 부문과 비교할 때, 아동의 신체적 발달은 母의 자질에 따른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며, 또한 母의 온정이 국민학교 2학년 이후에는 아동의 신체적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네째로, 부모를 온정적이라고 지각하는 아동은 부모를 비온정적이며 비통제적이라고 지각하는 아동보다 자아가치를 높게 지각하였으며, 부모를 온정적이며 통제적이라고 지각하는 아동은 부모를 비온정적이며 통제적이라고 지각하는 아동보다 자아가치를 높게 지각했다. 이것은 부모의 온정이나, 참여가 아동의 자존감 형성에 매우 중요하냐(Rohner, 1986:99), 아동의 수행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온정적인 부모는 아동의 자존감이나 역량을 고양시킨다(Harter, 1978)는 결과로 해석된다.

4.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과 통제

부모의 교육수준을 중졸이하, 고졸, 대졸로 나눈후, 일원변량분석한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父가 대졸인 경우의 아동이 父가 고졸인 경우의 아동보다 부모를 온정적이라고 지각했으며, 母가 대졸인 경우의 아동이 母가 중졸인 경우의 아동보다 부모를 온정적이라고 지각했다. 이것은 이원녕(1987:341), 한종혜(198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아동이 지각한

통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부모의 교육수준과 부모의 통제가 관계가 없었다는 한종혜(1980)의 결과와 일치한다.

5. 아동의 학년에 따른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아동의 학년에 따른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에 대한 점수를 t검증한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4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보다 인지적 역량과 자아가치를 높게 지각했다. 그러나, 사회적 역량이나, 신체적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인지적 부분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취에 대한 압력을 많이 받으며, 학습 내용도 심화되므로, 자신의 인지적 역량에 대한 지각도 낮아지리라 여겨진다. 또한, 6학년의 경우 이시기가 사춘기로 접어드는 시기이므로 이제까지 당연시 하던 자신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반적인 자신의 가치를 낮게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6.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 지각 점수를 t검증한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아가 신체적 역량만을 여아보다 높게 지각했고 다른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김치영(1987), Cause(1988), Harter(1982)와 일치하는 것으로 운동등의 신체적 활동이 남성의 영역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서,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의 차이가 신체적 역량 부문에서만

나타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이 결과는 자아개념의 경우 전반적인 자아개념의 점수를 합산했으므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 Wylie(1979)의 제언을 지지한다.

7.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온정과 통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과 통제 점수를 t검증한 결과, 남아가 여아보다 부모를 통제적이라고 지각했다.

이것은 Goldin(1969), Rohner와 Pettengill(198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母는 남아를 여아보다 더 성가시고 다루기 힘들다고 여기며(Abbott, & Brody, 1985), 남아는 여아보다 신체적 활동을 선호하므로 부모가 통제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Ⅵ. 結 論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부모의 온정과 통제에 따라서 兒童의 역량에 대한 自己知覺이 차이가 있으며, 그 영향은 역량의 부문에 따라서, 각각 달랐다. 兒童이 父母를 溫情的의하면서도 統制的으로 지각하는 경우 認知的, 社會的 力量에 대한 自己知覺이 가장 높았으며, 전반적 자아가치에 대한 自己知覺도 가장 높았다. 그러나, 신체적 力量에 대한 自己知覺은 父母의 溫情과 統制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또한, 아동은 父母의 교육수준이 대졸인 경우에 父母를 가장 溫情的으로 지각했다. 세째로, 4학년 兒童이 6학년 兒童보다 인지적 力量에 대한 自己知覺과 전반적인 자아

가치에 대한 자기지각이 높았다. 네째, 남아는 신체적 力量만을 여아보다 높게 지각했다. 다섯째, 남아는 父母를 보다 統制적이라고 지각하나, 父母의 溫情에 대해서는 여아와 마찬가지로 지각한다. 따라서, 父母의 溫情은 父母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統制는 兒童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은 다음과 같은 연구의 制限點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한다. 첫째, 父母의 溫情 차원과 統制 차원을 측정하는 척도는, 父母의 溫情이나 統制가 단일 차원이기 보다는 다차원적이므로, 보다 세분화해서 척도를 구성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둘째, 본 연구는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서울의 4, 6학년 兒童을 有意 標集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父母의 溫情과 統制가 兒童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발달에 미치는 효과만을 고찰했으므로, 父母 자신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배제되었다. 네째, 본 연구는 형제 관계, 과외 활동등의 영향이 배제된 채로 수행되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과 통제를 동시에 측정했으므로, 아동이 주된 양육자인 母에 의한 온정과 통제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참 고 문 헌

강완숙(198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태도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

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치영(1987).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과 학업성취. 숙명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오성심. 이승종(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행동과학, 연구노우트, 11.
 유안진(1982). 육아론. 서울: 문음사
 이미정(1988). 아버지의 자기존중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존중감의 관계. 아동학회지, 9권 1호, 47-61.
 이수연(1985).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욕구충족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원녕(1987). 부모교육론. 서울: 교문사.
 정원식(1969). 가정환경진단검사. 서울: Korean Testing Center.
 정정순(1972). 한국 어머니와 미국 어머니와의 양육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대안가정학회지, 10권 2호, 81-84.
 조희금(1982). 창의성과 창의적 인성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성희(1985). 아동의 사회적능력 발달과 역할수용능력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중혜(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Abbott, D. A., & Brody, G. H. (1985). The relation of child age, gender and number of children to marital adjustment of wiv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77-84.

- Ainsworth, M. D. S., & Bell, S. M. (1974).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K. Connolly and J. Bruner (Eds.), The growth of competence, London: Academic Press.
- Bandura, A. (1981). Self-referent thought: A developmental analysis of self-efficacy. In J. H. Flavell and L. Ross (Eds.),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ent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43-88.
- _____ (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In A. D. Pick (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7.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ecker, W.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1;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Block, J. H. (1983). Differential premises arising from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the sexes: Some conjectures. Child Development, 54, 1335-1354.
- Cause, A. M. (1987). School and peer competence. in early adolescence A test of domain specific self-perceived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287-291.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Gecas, V. (1979). The influence of social class on socialization.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New York: Free Press.
- George, C., & Main, M. (1979). Social interaction of young abused children: Approach, avoidance, and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50, 306-318.
- Goldin, P. C. (1969). A review of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71, 222-236.
- Harter, S. (1978). Effectance motivation reconsidered-toward a developmental model. Human Development, 21, 34-64.
- _____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_____, & Pike, R. (1984). 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969-1982.
- Heilbrun, A. B., & Waters, D. B. (1968). Underachievement related to perceived maternal childrearing and caademic conditions or reinforcement. Child Development, 39, 913-921.
- Kagan, J., Hans, S., Markowitz, A., Lopez, D., & Sigal, H. (1982). Validity of children's self-reports of psychological qualities. In B. A. Maher & W. Maher (Eds.),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 Vol. 11. New York: Academic Press.
- Maccoby, E. E. (1980). Social development: Psychological growth and the parent-child

- relationship.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Maccoby, E. E., & Jacklin, C. N.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rtin, B. (1975). Parent-child relations. In F. D. Horowitz (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4.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oss, H. A. (1967). Sex, age, and state as determinants of mother-infant interaction. Merrill-Palmer Quarterly, 13, 19-36.
- Nottelman, E. D. (1987). Competence and self-esteem during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441-450.
- Perry, D.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Ea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Peterson, G.W., & Rollins, B. C. (1987). Parent-child socialization. M. B. Sussman & S. K. Steinmetz (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Y: Plenum Press.
- Piers, E. V., & Harris, D. B. (1964). Age and other correlates of self-concept in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5, 91-95.
- Rohner, R. P. (1986). The warmth dimension. Beverly Hills: Russel Sage.
- _____ & Pettengil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 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_____, & Rohner, E. C. (1981). Parental acceptance- 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Cross-cultural codes. Ethnology, 20, 245-260.
- Rollins, B. C., & Thomas, D. L. (1979). Parental support, power, and control technique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New York: Free Press.
- Rowe, D. C. (1981). Environmental and genetic influences on dimensions of perceived parenting; A twin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17, 203-208.
- Schaefer,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235.
- Schludermann, S., & Schludermann, E. (1970). Replicability of factors in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Psychology, 76, 239-249.
- Shavelson, R. J., Hubner, J. J., & Stanton, C. G. (1976). The self-concept: Validation of construct interpret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6, 407-441.
- Siegelman, M. (1965). College student personality correlates of early parent-child relationship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558-564.
- Stigler, J. W., Smith, S., & Mao, L. (1985). The self-perception of competence by Chinese children. Child Development, 56, 1259-1270.
- Stipek, D. J. (1981). Children's perception of their own and their classmates' abi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3, 404-410.
- Wylie, R. C. (1979). The self-concept.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Zill, N. (1985). Happy, healthy, and insecure.

New York: Doubleday.

Zussman, J. U. (1978). Relationship of demographic factors to parental discipline techniques. Developmental Psychology, 14, 685-686.